

# 칼빈의 언약론에 대한 피터 릴백(Peter A. Lillback)의 이해 -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을 중심으로

김재용(고신대학교 교의학 박사과정)

## I. 들어가는 말



언약이 조건성을 지닌 쌍방성의 개념인가 또는 무조건성을 지닌 일방성의 개념인가의 문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것인가? 또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나타나는가? 라는 문제와 동일시된다.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가 칭의에 포함되는가? 그 행위는 믿음에 있어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는가? 라는 논란으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약에 있어 조건성은 언약의 쌍방성 혹은 상호성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언약으로 이해될 수 있고, 언약의 무조건성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의무를 뜻하는 편무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은혜언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행위의 책임이 요구되는 행위언약이라는 논란은 종교개혁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개혁신학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의 언약이해에 대해서는 피터 릴백(Peter A. Lillback)의 단행본 『칼빈의 언약사상』(*The Binding of God*)이 많은 개혁신학자들에게 인용되고 있으며, 칼빈의 언약 이해에 있어 그의 영향력이 거의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개혁 신학에서도 언약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릴백은 그 중심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릴백의 칼빈언약이해가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의 칼빈 언약사상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릴백은 그의 저서에서 칼빈의 언약이해에 행위언약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것이 그의 언약이해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논지를 전개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 있는 행위도 주장하며, 그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열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칼빈이 중세 스콜라 학파의 공로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개혁교리에 적용시켰다고 간주한다. 만약 릴백의 생각대로 칼빈이 행위언약을 주장했다면, 칼빈의 신학체계는 상당한 혼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오직 은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칼빈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 혹은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연관성과 조화의 문제는 인위적인 조합에 의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칼빈의 언약이해가 릴백이 바라본 이해와 일치하는지를 비판적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칼빈의 언약 이해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

### 1. Foedus, Pactum, 그리고 Testamentum의 의미

릴백은 칼빈이 foedus, pactum 및 testamentum이라는 용어들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칼빈의 언약사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릴백은 이 용어들이 각각 상호적 의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칼빈의 언약 용어 사용도 루터의 일방적 약속보다는 상호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sup>1)</sup> 그러나 칼빈은 언약에 대한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릴백의 이해처럼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릴백이 지적한 갈 4:1과 4:24 주석에서의 위 세 용어들의 혼용도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의미를 위해서가 아닌 성과 수 등 문법적인 적실성에 근거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므로 칼빈이 언약용어 사용에 근거해서 행위언약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릴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2. 칼빈의 결속(Binding)개념과 언약

또한 칼빈의 결속(Binding) 개념과 언약의 문제를 볼 때, 릴백은 칼빈의 언약개념을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결속개념으로 이해하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빈이 하나님의 결속개념으로 언약을 이해했다고 주장한다.<sup>3)</sup> 또한 릴백은 칼빈이 약속, 언약, 결속, 양자삼음, 그리고

1)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136-37.

2) 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Cunitz, & E. Reuss, 23 (Brunsvigae: C. A. Schwetschke et filium, 1882-1900, 이하 CO로 약칭해서 표기함. CO 50, 237 (갈 4:24 주석).

3)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37-41.

하나님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동일한 맥락에서 연합한다고 보았다.<sup>4)</sup> 그러나 릴백이 주장하는 언약의 연속개념에 대한 칼빈의 인용을 살펴보면 언약과 양자삼음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칼빈은 야곱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면서 외형적으로 선택된 사람들로서 일반 양자(common adoption)<sup>5)</sup>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들이 일반 언약(common covenant)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릴백은 칼빈이 여기서 양자삼음과 언약의 두 경우 모두에 일반 또는 공통(comm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칼빈이 사용하는 언약개념이 은혜언약의 개념인지 행위언약의 개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오히려 그는 문맥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은 자비와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측면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양자개념과 언약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는 릴백의 주장은 “일반은총이 언약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이는 논리적으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여겨진다.

### III.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본 언약 이해

#### 1.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보면, 우선 릴백이 칼빈이 행위언약을 주장했음을 보이기 위해 그의 언약사상을 불령거의 언약개념과 접

목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불령거의 언약개념은 상호적 은혜언약으로 귀결되는데, 릴백은 칼빈의 언약을 다름에 있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도입시킴으로써 그 연속성에서 비롯되는 상호적 은혜언약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칼빈의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에 대한 이슈가 올바르게 이해될 때 그의 언약이해에 분명한 해답이 주어질 수 있다. 칼빈이 『기독교강요』 전반에 걸쳐 주장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으며, 구약은 신약의 상징과 예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맺어진 언약의 중재자로 이해된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신칭의론이 적용된다.

우선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다섯 가지 차이점을 언급한다.<sup>6)</sup> 첫 번째 차이는 전자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반면 후자는 영적 축복에 대한 직접적 목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차이는 전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성육신을 통한 완전한 계시라는 점이다. 세 번째 차이는 전자는 죽이는 문자로서 정죄하는 기능을 지니면서도 동일한 본질로서 그 속에 복음을 포괄하고 있고, 후자는 살리는 영에 의해 율법을 심령에 기록하고 죄사함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차이는 전자가 감금과 공포인 반면 후자는 자유와 신뢰라는 점이고, 다섯 번째 차이는 전자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반면 후자는 모든 나라에 펼쳐진다는 점이다.<sup>7)</sup> 릴백은 이러한 칼빈의 언약이해에 행위언약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과 동일본질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또는 언약이 있다고 이해한다.<sup>8)</sup> 그는 칼빈과 불령거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고 간주하며, 칼빈에게서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

4)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39.

5) 칼빈은 은총에 있어 comm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일반은총을 나타낸다. 칼빈은 아모스 9:7 주석에서 *communio gratia*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은총을 말한다. 이 용어는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니”의 주석에서 사용되었는데,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 자손들 뿐 아니라 블레셋과 구스인들도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롬 5:18 주석에서도 이 용어를 언급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미치는 은혜를 말할 때 사용한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제공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1559), 2.11.4. 이하 *Inst.*로 표기한다.

7) *Inst.*, 3.11.1-12.

8)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58.

면서도 그 속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구약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은 칼빈 신학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그의 신학은 성경적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의 균형과 긴장을 올바르게 유지한다. 릴백은 불링거와 칼빈과의 유사성을 고찰함을 통해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sup>9)</sup> 그러한 그의 주장이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백은 칼빈에게서 구약과 신약의 지나친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서 칼빈이 말한 불연속성 또는 차이점은 넓은 의미의 율법 개념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며, 또한 불링거를 통해 인간행위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릴백의 연속성 강조는 구약율법을 여과하지 않고 재조명하고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율법을 통일성을 주장하는 신율주의(theonomy)를 연상시킨다.<sup>10)</sup> 또한 릴백이 칼빈의 언약사상과 연결시키는 불링거적 도덕주의와 관련해서는 칼빈의 율법관에 따라 불링거의 입장을 비판하는 문병호의 논의를 볼 때,<sup>11)</sup> 불링거는 율법이 단순히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의주의(主意主義)적 차원에만 머물러서 율법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12)</sup>

9)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69.

10) 김정우, "구약 율법과 신약윤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58/1 (1991), 9-42.

11) 문병호, "Christus Mediator Legis : 칼빈 율법관의 기독교적 기초," 『신학지남』 71/4 (2004), 267-68.

12) 문병호, "Christus Mediator Legis," 267.

따라서 필자는 릴백이 칼빈에게서 언약의 조건성이 있다고 본 것이 그가 칼빈을 불링거의 주의주의와 일치시킨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릴백은 불링거의 주의주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율법을 지켜야하는 조건성이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새언약도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조건성이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문병호의 지적대로 이것은 칼빈이 말한 율법의 제3의 용법으로서의 규범적 성격과는 판이한 주장이다. 칼빈은 율법의 규범적 성격으로서의 신구약의 연속성을 말했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sup>13)</sup>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행위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칼빈의 신구약 연속성에 대한 이해이었다.

## 2. 율법과 그리스도

릴백은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통일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칼빈은 성경주석 여러 곳에서 율법과 복음의 불연속성 또는 대립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한 대립성을 설명하는 여러 주석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석은 고후 3:6-7 주석인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의문(law)이 아니라 영(Spirit)으로 새언약의 일군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밝힌다.<sup>14)</sup> 그리고 칼빈은 요 1:17 주석에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질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은혜와 진리를 율법과 대조시키는데서 반명제를 주목해야만 한다. 그것은 율법에 이 두 가지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생각에 진리라는 말은 확고하고 영구한 상태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은혜라는 말은 율법에 포함된 의문에 속한 것들이 영적으로 성취된 것을

13) *Inst.*, 4.17.29-30.

14) *CO* 50, 39-40 (고후 3:6-7 주석).

말한다. 저러한 두 가지 낱말은 환치법(換置法)에 의해서, 율법의 진리가 들어 있는 은혜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sup>15)</sup>

또한 갈 2:19 주석에서 율법이 말하는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음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를 다음과 같이 해설되기도 한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신뢰하지 않으며, 율법도 우리를 노예의 멍에 아래로 가둬두지 못한다. 혹은 율법을 향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 모두를 파괴에 넘겨줌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런 생명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적합한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악의 조작자라는 것을 부인하며, 율법은 도움이 된다고 보다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저주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음은 참으로 치명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바울은 그것과 대조해서 다른 종류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의 죽음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말한다.<sup>16)</sup>

동일한 내용을 롬 8:15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정교하고 간략하게 표현한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하기 위하여 바울은 두 종류의 영이 있다고 소개한다. 그는 우리가 율법의 영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속박의 영이라고 부르고,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한다. 그는 전자는 과거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어졌고, 후자는 확신을 주기 위해 지금 주어진다. 그가 확정하기 원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대

15) CO 47, 18 (요 1:17 주석).

16) CO 50, 197-98 (갈 2:19 주석).

의 그러한 비교로부터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sup>17)</sup>

칼빈은 모세의 직책을 회개와 은혜와 믿음을 선포하는 일반직책과 완전한 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특별직책의 두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바울이 한편으로는 율법을 선포하고 거룩한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sup>18)</sup> 율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칭의의 원인과 방법에 관련해서만 믿음과 반대된다.<sup>19)</sup> 이러한 신구약의 본질적 통일성과 칭의의 영역에 있어서의 형식적 차이, 그 사이에 있는 긴장과 균형이 칼빈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릴백의 연속성 개념의 논리적 비약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IV.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나타난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 1.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어서 칼빈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인<sup>20)</sup> 언약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지니는 두 가지 구속적 유익<sup>21)</sup>이 곧 칭의와 성화임을 볼 수 있는데,<sup>22)</sup> 양자는 구분되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sup>23)</sup>

17) CO 49, 147-49 (롬 8:15 주석).

18) CO 49, 197 (롬 10:5 주석).

19) *Inst.*, 3.17.6.

20) *Inst.*, 2.10.1. & 1.4.1.

21) *Inst.*, 3.20.45. & CO 38, 686 (렘 31:31 주석).

22)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0-85. 릴백은 이 논의에서 *Inst.*, 3.20.45; 3.1.5,19; 3.11.1 & 6; 3.16.1; 3.17.1 & 3 등을 인용하고 있다.

23)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76-80. 릴백은 칼빈의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대체로 올바르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흠 없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합하여, 우리는 하늘에 심판자 대신에 은혜로운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되어 흠 없는 삶과 순결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참 회개가 믿음과 분리될 수 있는가? 전혀 그럴 수

칼빈은 겔 18:17 주석에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믿음은 선행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선행 없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제안은 사실임과 동시에 거짓이다. 그 사실과 거짓의 여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선행 없이 의롭게 한다는 제안 자체는 거짓이다. 그러나 만일 '선행 없이'란 표현을 '의롭게 한다'라는 단어와 연결한다면, 그 제안은 사실이다. 믿음은 선행이 없을 때 의롭게 할 수 없다. 그 경우에 믿음은 죽은 것이고 단순히 허구가 된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의롭다(요일 5:18). 그러므로 태양이 자신의 열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선행과 분리될 수 없다. 선행이 우리의 칭의를 위한 원인을 형성하지 않는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합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고 그의 독생자 안에서 말이다.<sup>24)</sup>

칼빈은 믿음이 선행과 분리될 수 없다고, 또한 분리될 경우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는 선행이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지만 그 믿음 안에 선행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릴백은 것처럼 칼빈에게서 칭의와 성화가 하나로 묶인 개념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언약의 조건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나간다. 그는 칼빈의 믿음의 개념 안에 있는 선행을 율법에 대한 순종과 동일시하며,<sup>25)</sup> 또한 칼빈의 칭의개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은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비록 영구적 결속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것이지 혼동되는 것은 아니다.”

24) CO 40, 439 (겔 18:17 주석).

25)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5. 릴백은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주의자와 루터 사이의 논쟁을 다루면서, 로마 가톨릭 외에 루터의 칭의 견해와 맞선 사람으로 쾰빙글리 전통에서 있던 불링거와 칼빈을 동일시한다. 이는 칼빈의 견해가 루터의 견해와 다르며 불링거의 견해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Bullinger declares that ‘the steadfastness and purity of faith, further the innocence and purity of life, that is, the integrity and straight way by which the saints walk before God’ are the very conditions of the covenant.”

념을 루터의 이신칭의와 구별하기 위해 양자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소가 전혀 없다며 루터의 주장을 논박한다.<sup>26)</sup> 릴백은 이어서 칼빈의 겔 18:17 주석을 들어 믿는 자의 순종이 칼빈의 칭의교리에 불가분적 요소이었음을 확신함<sup>27)</sup>과 동시에 칼빈의 ‘트렌트 종교회의에 대한 해독제’<sup>28)</sup>라는 글을 통해 칼빈에게서 이신칭의와 순종이 항상 동반된다고 주장한다.<sup>29)</sup> 그 순종이 성령에 의해 복음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성화가 칭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칭의를 약화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칼빈은 칭의에 있어 선행의 위치에 있어서만 의견이 다를 뿐 루터와 견해를 달리하지 않으며,<sup>30)</sup> 릴백의 상호적 은혜언약 개념은 칼빈의 율법에 대한 순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릴백의 논리에 따르면 성화는 상호적 은혜언약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인간의 책임이 강조된다.<sup>31)</sup> 그는 칼빈의 칭의와 성화를 다루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매듭짓는다. “그러나 언약의 유익에 대한 이 견해는 어려운 질문을 야기시킨다. 성화와 순종이 강하게 밀착되어 있을 때, 어떻게 칼빈은 칭의에서 유일한 믿음의 도구를 보호할 수 있는가?”<sup>32)</sup>

이 질문에는 성화에 율법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음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는 행위언약을 가리킨다.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성

26) “The Formula of Concord,” In *The Book of Concord*, ed. and trans.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05), 544.

27)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6-87.

28) CO 35, 450 (음 40:6 설교).

29)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93.

30) 베른하르트 로제, 『마틴 루터의 신학』, 정병식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368-71.

31)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1. 릴백은 *Inst.*, 4.13.6.의 맹세를 다루는 부분을 인용하는데,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므로 어려운 규정이 은혜언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 언약에는 죄의 용서와 성결의 영광 도움을 바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릴백은 이것이 칼빈이 언급하지 않은 ‘상호적 언약(biparte covenant)’이라고 정의한다. 릴백은 그의 상호적 언약개념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한 순종을 인간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32)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3.

화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칭의의 은혜가 성화의 순종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릴백은 더 나아가 칼빈이 스킨라주의자들의 수용언약(covenant of acceptance)<sup>33)</sup>을 수락했다고까지 주장하는데,<sup>34)</sup> 은혜언약으로 인해 믿는 자의 행위가 수용된다는 칼빈의 진술에서 ‘stipulatio’(조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서 칼빈이 은혜언약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포함시켰다는 릴백의 주장은 그 단어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sup>35)</sup> 오히려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칼빈이 여기에 죄용서와 성화의 영이 포함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은혜언약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릴백은 칼빈에게서의 칭의와 성화의 상호연결을 상호적 은혜언약개념과 율법조건이 은혜언약에 포함된다는 자신의 논지를 통해 확대시켜 나간다.

## 2. 성화와 상호적 언약개념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고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칭의가 완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에<sup>36)</sup>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성화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신분적 변화와 실제적 변화로 분명히 구별했다. 칭의는 신분적 변화로서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외부적 의로움(alien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전적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회복함과 동시에 제도적 구

33) 김재용, “칼빈의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피터 릴백의 칼빈 비판을 중심으로”, 미간행 신학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3.2).

34)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6.

35) *Inst.*, 4.13.6, CO 2, 929.

36) 엘리스터, 맥그래스, 『하나님의 칭의론: 기독교 교리 칭의론의 역사』, 한성진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8), 429-46.

원관, 율법주의적 영성의 오류에서 구원의 진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칭의와 성화의 구별을 주장하는 가운데 무율법주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원론에서 성화를 칭의에 앞서 다룬<sup>37)</sup> 칼빈이 가장 염려했던 것도 칭의 교리의 남용이었다. 칼빈은 오히려 칭의가 신앙생활의 바탕이자 참된 경건을 가능케 하는 기초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전략적으로는 성화를 앞세웠고 논리적으로는 칭의를 앞세웠다. 칭의와 성화는 단일한 은혜의 양면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동시에 받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동시에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시면서 의롭게 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관계로 결합되어 있다.”<sup>38)</sup>

칼빈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으며, 행위 자체를 칭의의 성격을 나타내는 증거이요 시금석이라고 말한다.<sup>39)</sup> 우리는 여기서 릴백이나 불령거의 주장처럼 칭의 안에 있는 성화, 믿음 안에 있는 행위가 하나라고 하여 그것이 상호적 은혜언약 개념으로서 조건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칼빈의 언약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베이커(J. Wayne Baker)와 트린테룻(Leonard J. Trinterud) 및 맥렐란드(Joseph C. McLelland)는 불령거의 언약개념이 상호적 언약(mutual covenant)이고 루터와 칼빈은 무조건성을 포괄하는 일방적 약속(unilateral covenant)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sup>40)</sup> 스트렐(Stephen Strehle) 또한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과 개신교 스킨라주의적 언약신학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지적하면서 루터나 칼빈과 후기 언약주의자 또는 계약주의자들 사이의 어

37)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을 시작하면서 6-10장은 생활의 거룩에 대한 성화를 다루고, 11-14장까지 칭의를 다룬다.

38) *Inst.*, 3.16.1.

39) *Inst.*, 3.17.12.

40) Lillback, *The Binding of God*, 20.

편 연결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 베이크와 트린테룻을 지지한다.<sup>41)</sup> 릴백 또한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이신칭의를 공격했던 쾰링거 전통을 지적하면서 루터에 대한 불링거의 공격을 언급하는데,<sup>42)</sup> 불링거는 “칭의란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실현이다”라고 주장했다.<sup>43)</sup>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불링거와 마틴 부쎈(Martin Bucer) 및 외콜람파디우스에게 공동된 칭의에 있어서의 도덕주의적 선입관을 지적한다.<sup>44)</sup> 이런 측면에서 릴백은 불링거와 부쎈 및 외콜람파디우스에게서 영향 받은 듯 하다. 릴백은 루터의 칭의론을 공격했던 쾰링거 전통에서 있는 불링거와 부쎈을 칼빈과 동일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칼빈이 칭의를 말할 때 루터의 입장에 견고히 서 있음을 살펴보았다. 릴백의 입장에 따르면 칭의가 곧 하나의 도덕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로마가톨릭의 오류에 접근하게 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3. 언약의 조건성과 종속적 의

칼빈의 칭의론에서 선행이 종속적 의로서 언약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릴백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칼빈에게 행위언약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인간선행에 대한 칼빈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빈은 성령의 은혜에 의한 믿는 자의 선한 행위를 종속적(subordinate) 의와 본성적(inherent) 의로 구분하는데, 종속적 의는 하나님께서 전가해주신 믿음의 의로움에 종속되어 있는 선행의 의로움을 말하며, 본성적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믿는 자의 본성에서 나온 선행의 의로움을 말한다.<sup>45)</sup> 릴백은 칼빈이 이러한 ‘선행’을 구원의 열등적 원인으로

41) Lillback, *The Binding of God*, 20-22.

42)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5.

43) Bullinger, *Sermonum decades quinque*, 157. *De gratia dei iustificante*, 65-67. 맥그래스, 『하나님의 칭의론』, 336에서 재인용.

44) 맥그래스, 『하나님의 칭의론』, 336.

로 말한다고 언급한다.<sup>46)</sup> 릴백이 칼빈의 은혜언약에 선행의 조건이 있다는 것은 칭의와 선행이 불가분적이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믿음 안에 선행이 포함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증거를 가져온 것이라 여겨진다. 릴백은 종속적 의와 본성적 의를 동일시하여 구원의 열등적 원인으로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릴백이 칼빈에게서 발견한 그 인용문에는 ‘종속적 의’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칼빈의 시편 106:31 주석을 인용한 부분<sup>47)</sup>에서 릴백은 ‘subordinate’(종속적인)라는 단어로 선행이 칭의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sup>48)</sup> 라틴어 본문에서 해당 단어는 ‘subalterna’로서 ‘종속적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보다 분명히는 ‘~아래에’, ‘~보다 못함’으로 사용된다. 릴백이 ‘subalterna’를 영어로 ‘subordinate’로 오역한 것으로 이해된다. 칼빈은 시 106:31 주석에서 선행이 칭의보다 열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전가해주지 않는 한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적절하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선행에 의한 의로움은 방금 언급된 의로움에 종속된 것이다. 선행은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전가해 주지 않는 한, 그 자체 내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sup>49)</sup>

또한 릴백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인용한 ‘선행이 구원의 열등한 원인’(inferior causes)<sup>50)</sup>이라는 부분에서도 오류가 나타난다. 릴백은 칼빈의 언약신학을 다루면서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칼빈은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행위 자

45)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91.

46) *Inst.*, 3.14.21.

47) *CO* 32, 128-29 (시 106:31 주석).

48)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9. & *CO* 32, 128-129 (시 106:31 주석).

49)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9. & *CO* 32, 128-29 (시 106:31 주석).

50) *Inst.*, 3.14.21.



체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열등한 원인인 행위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가 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라고 강조한다. 행위의 주체가 인간인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따라서 릴백이 주장하는 칼빈의 내재적 의에 나타난 열등적 원인은 칼빈이 주장하는 구원의 네 가지 원인(동력인[動力因], 질료인[質料因], 형상인[形象因], 목적인[目的因])<sup>51)</sup>의 열매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릴백이 말하는 종속적 의의 개념 또한 칼빈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릴백이 주장하는 인간의 내적 선함과 언약의 조건성

릴백은 언약의 조건성과 함께 인간의 내적 선함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릴백이 칼빈을 인용하면서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엔 칼빈이 『기독교강요』 1권에서 ‘영혼의 내적 선함’(an inner good of the soul)이 인간의 의지와 지성에 영향을 주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끈다고 했던 말이 행위언약과 관계되는데, 여기서도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칼빈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혼의 내적 선함’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된 영혼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다.<sup>52)</sup> 릴백은 그것을 앞서 언급된 인간의 ‘내재적 의’와 유사하게 행위언약과 관계되는 논리로 설명한다.<sup>53)</sup> 릴백은 구원 받은 영혼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sup>54)</sup> 그러나 그 의지와 노력의 출처는 성령의 인도와 간섭과 능력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히 8:10 주석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본성일지라도 여전히 완악하여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도의 본성은 여전히 완악하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없다. 둘째 항목은 죄의 값없는 용서에 관해서이다. 비록 그들은 범죄 하였지만 그들을 용서하리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신다... 실로 우리의 본성의 사악함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이로 인한 더럽고 시악한 욕망은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그리하여 이 일로부터 바울이 한탄하는 그러한 싸움이 나온다(롬 7:13). 즉 신자들은 하나님께 정당하게 복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언약에는 아무런 영구성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언약을 한 번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과 그들이 굴복당하고 있는 어떤 죄도 용서의 약속이 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약속은 그들에게 오직 하루 동안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로 마지막까지 주어진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5)</sup>

릴백은 계속해서 칼빈에게 행위언약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을 다루면서 선택주의(particular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에 대한 논쟁을 시작한다.<sup>56)</sup> 해당 신학자들은 칼빈의 대표적인 교리인 선택주의에 근거하여 행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보편주의 개념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 릴백은 칼빈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Eternal Predestination of God)을 통해서 논박하는데, 아담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지에 대해 아담의 지속적 순종 여부에 따라 그의 생명이 조건적이었다고 이해한다.<sup>57)</sup> 릴백은 “구원은

51) *Inst.*, 3.14.21.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의 네 가지 원인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논리를 사용한다.

52) *Inst.*, 1.15.4.

53)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89-90.

54)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91-93.

55) *CO* 55, 102-103 (히 8:10 주석).

56) Lillback, *The Binding of God*, 286.

그들이 원래의 순수함 안에서 지속된다는 조건하에서 모두에게 제공되었던 것이다”<sup>58)</sup>라는 인용문에서 언급된 ‘조건’에서 칼빈이 언약을 암시했다고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적 생명 제공은 특정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59)</sup> 릴백이 칼빈의 예정론에서 인용한 ‘조건’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놓여 있는 운명인 반면, 거기서 여전히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그의 양 무리에 들어오게 되며 그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sup>60)</sup>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편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5. 칼빈과 스콜라주의의 수용언약 (Covenant of acceptance)

릴백은 칼빈이 루터의 이신칭의 개념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스콜라학파의 수용언약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한다.<sup>61)</sup> 릴백은 선행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칼빈과 스콜라주의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이해한다.<sup>62)</sup> 스콜라학파의 수용언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공로가 되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이를 수정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를 보상할 아무런 빛도 없으실 뿐 아니라 그럴 의무도 없으시지만, 단지 관대한 사랑으로 성도의 행위를 수용하신다고 말한다. 릴백은 칼빈의 이러한 수용이 루터와 스콜라학파 사이의 중간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또한 이렇게 수용된 행위가 이신

57) 위의 책.

58) John Calvin, *Calvin's Calvinism: Treatise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 the Secret Province of God*, trans. Henry Cole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2006), 92-99.

59) Lillback, *The Binding of God*, 287.

60) Calvin, *Calvin's Calvinism*, 93-94.

61) Lillback, *The Binding of God*, 200-202. & *Inst.*, 3.7.13 & 15.

62) Lillback, *The Binding of God*, 202.

칭의와 성령에 의한 성화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칼빈의 언약 신학에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릴백의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릴백이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행위가 조건이 된다는 논리를 전제하는 반면, 칼빈이 자신의 수많은 저서에서 진술한 공로에 대한 견해들 뿐 아니라 심지어 릴백 스스로가 인용한 눅 17:10 주석에서도 칼빈은 행위로 인한 공로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은 성립될 수 없다며 사실상 릴백의 견해를 부인하고 있다.<sup>63)</sup>

공적과 보상을 상호 연관시키는 자는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감동을 받아 상을 주시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친절에 의해서만 보상하신다. 율법의 언약에 있어서 사람들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경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실 의무를 갖는다는 사실을 나는 공언한다. 그렇지만 이 의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 공로로써 무엇을 얻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시 자명한 원칙이다... 율법의 언약에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행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진하여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할 만한 사실은 학자들이 감히 타당성의 공로(meritum de condigno)라는 교리를 창안한 것이다. ‘공로’란 말 자체는 경건의 규범에 있어서 이교적이고 외래적이지만 사람들이 악한 교만에 도취되고 타당성(de condigno)에 근거하여 어떤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일이다... 공로에 관한 한 율법을 준수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행위로 인한 공로에 의하여 의로워진다는 사실은 성립될 수가 없다.<sup>64)</sup>

또한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신자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스콜라학파를 인용하는 걸 보면 릴백이 주장하는 그 비판적 수용이 부분적으로는 이

63) CO 45, 413-15 (눅 17:10 주석).

64) CO 45, 413-15 (눅 17:10 주석).

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행위의 불완전함과 용납불가능성, 예의 유일한 근거로서의 믿음에 대한 칼빈의 주장 및 스콜라 학자들에 대한 그의 반박<sup>65)</sup>을 감안할 때 릴백이 칼빈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논리를 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릴백이 이해한 칭의에 내재된 인간행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속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날마다 계속되는 칭의의 은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지만 논리의 귀결로 살펴볼 때 분명히 릴백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릴백의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혹은 알미니안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칼빈의 은혜의 주권사상과 인간의 책임 및 의무를 상관시키려는 노력에는 매우 고무적인 측면이 있지만, 성도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sup>66)</sup> 칼빈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릴백은 칼빈의 특정 구절을 들어 칼빈이 “영원한 구원은 믿음만의 보상”임을 부인한다고<sup>67)</sup> 주장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문장<sup>68)</sup>은 인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종합적이지도 포괄적이지도 못한 스스로의 맹점을 드러낸다. 릴백은 칼빈이 말하는 모든 행위 또한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것이 마치 전체 개념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한다. 칼빈은 스콜라 학자들의 수용언약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퀘변론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

65) *Inst.*, 3.14.11.

66) *Inst.*, 3.14.16.

67) *Inst.*, 3.15.4. 릴백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The recompense of our toils, and crown of our contest, our Lord almost uniformly places in heaven.”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99.

68) *Inst.*, 3.15.4. 해당 문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실을 행위의 공로에 돌리고 은혜와 절연시키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반대되는 생각이다”이지만, 릴백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on the other hand, to attribute to the merit of works, so as to deny it grace, that we are loaded with other gifts from the Lord, is contrary to the doctrine of Scripture.”

판했다.<sup>69)</sup> 칼빈이 성화의 신학자이고 많은 곳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행위를 말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릴백이 지적한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루터가 믿음에 있어서 행위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반면 칼빈은 믿음 안에서 행위를 통해 언약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스콜라학파의 수용언약에 영향을 받았든지 또는 수용언약을 수정하여 성화론을 발전시켰다는 논리는 칼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V. 릴백의 칼빈의 언약 이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릴백은 성화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빈이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강조했던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신학에 행위언약 즉 행위의 조건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자신의 논지를 통해 증명했다. 서구신학과 논리적 사고에 익숙한 그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사고를 연결시킨 것이다. 칼빈이 말한 은혜언약 안의 행위적인 요소로 인해 칼빈의 언약신학에 여전히 행위의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릴백의 주장이다. 그는 루터와 달리 칼빈이 칭의와 성화를 동일한 은혜의 서로 다른 두 측면으로 파악한 사실로부터 문자와 영의 이중구조 속에 놓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sup>70)</sup>에서 인간행위의 조건적 요소를 찾아낸다. 그는 이러한 칼빈의 은혜언약을 ‘상호적 은혜언약’<sup>71)</sup>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은

69) *Inst.*, 3.17.3.

70) 릴백은 칼빈의 신구약 연속성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 그리고 구약의 영적가치의 신약으로의 동일한 가치로의 이동을 말하는데, 사실상 그는 칼빈의 신구약 연속성보다 불평거의 주의주의적 불연속성으로서의 연속성을 주장한 것이었다.

71) 칼빈은 상호적 은혜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 개념은 릴백이 자신의 논리로 칼

혜언약 안에 조건성 혹은 언약의 쌍방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sup>72)</sup>

그러나 릴백은 조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행위언약 속에 있는 조건을 은혜언약에도 부가시켰다. 그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께 수용된다고 주장한 스콜라학과와 칼빈을 결부시켜 칼빈이 이들을 비판하면서 수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인간의 공로를 책임과 조건의 요소로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혜로 수용된 공로가 어떻게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으로 수용된 것이 어떻게 인간 편에서 책임이며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인간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칼빈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두 가지 개념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릴백과 달리 성경에 나타난 은혜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책임과 율법의 조건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 칼빈 신학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릴백은 날마다 주어지고 확인되어야 하는 칭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속죄의 은혜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릴백이 주장하는 칭의 개념에서 나온 조건 또한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칭의와 견인교리가 약화될 뿐 아니라 성화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대의 개혁주의를 비롯한 장로교회가 값싼 칭의로 인해 행위를 무시하고 성화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적 은혜언약 안에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릴백의 경고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논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믿음의 나무에다 열매를 조합시킨 격이라고 볼 수 있

빈의 언약을 이해하여 고안해 낸 개념이다. *The Binding of God*, 126-27.

72) 양신혜, "칼빈의 언약 사상에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 『한국개혁신학』, 34 (2012), 162-92.

다. 릴백은 칼빈과 불링거와 쾰링글리의 신학사상을 지나치게 통일된 체계로 간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칼빈은 동시대 개혁자들 사이에 일치를 추구했으므로 서로의 사상에서 동일시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정치적인 연합을 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성경진리를 통한 일치를 추구했다. 릴백은 칼빈과 불링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지나치게 사변적 차원에서만 일치를 추구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VI. 맺는 말

릴백이 칼빈을 언약신학자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의 언약이 은혜언약인가? 아니면 행위언약인가? 혹은 쌍방적인가? 일방적인가? 또는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에 대한 질문에는 제각기 다른 결론들이 도출된다. 칼빈이 언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양한 학자들이 저작들을 통해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친다.

릴백은 칼빈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한 신학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의 언약신학에 행위의 요소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칼빈의 행위언약은 은혜언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양자의 상관성 속에서 상호적 은혜언약이라는 개념을 도출해 낸다. 이 상호적 은혜언약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릴백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동일한 선상에 놓인 개념으로 보았다. 릴백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을 칼빈의 문자와 영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쾰링글리와 불링거의 주의주의(主意主義)의 입장에서 고찰한 것이었다. 주의주의적 율법이해는 율법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 결과 신약과 구약의 불연속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릴백은 이 주의주의의 불연속성

을 칼빈의 연속성에 덧입혀 불연속적 연속성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의 언약 이해에 행위언약적 요소가 있다는 논리는 바로 이 불연속적 연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의 언약이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외면적으로 보면, 칼빈적 언약이라고 칭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여전히 불령거적 입장에서 칼빈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릴백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칭의와 성화의 동질성을 주장한다. 칼빈이 주장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수용하면서도 칭의 안에 있는 성화의 행위가 조건이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또한 그 행위는 스킨라학파가 말한 공로사상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된다고 주장한다. 은혜로 수용된 공로가 조건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칼빈은 스킨라학파의 공로개념을 비판할 때 틈이지 그들의 논리 자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인간의 행위를 조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귀결이요, 믿음의 열매로 보았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릴백은 칼빈의 언약사상에 나타난 조건성이 언약적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포함된다는 논리를 전개시켰기 때문이다. 릴백의 평가자들은 릴백이 바라본 칼빈의 언약사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조화롭게 강조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릴백이 도출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는 칼빈의 논리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칼빈의 몸 불령거와 썬빙글리로 대표되는 도덕주의자들의 옷을 덧입힌 것에 불과하다. 릴백의 견해를 통해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행위구원과 은혜구원 사이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행위의 주체는 중생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말한다. 중생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1559).

\_\_\_\_\_.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1882-1900.

\_\_\_\_\_. *Calvin's Calvinism: Treatise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 the Secret Province of God*. Trans. Henry Cole.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2006.

\_\_\_\_\_. 『기독교강요 상, 중, 하』. 김종홍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_\_\_\_\_. 『칼빈 성경주석』.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The Formula of Concord," in *The Book of Concord*. Ed. and trans.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05.

Lillback, Peter A.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릴백, 피터. 『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김재용. "칼빈의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피터 릴백의 칼빈 비판을 중심으로".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부산: 고신대학교, 2013.

김정우. "구약 율법과 신약율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58/1, 1991.

\_\_\_\_\_. "시편 89편의 성경신학적 기여: 무조건적 언약 속에 있는 조건성의 수수께끼". 『신학지남』. 57/1, 1990.

문병호. "Christus Mediator Legis: 칼빈 율법관의 기독교적 기초". 『신학지남』 71/4, 2004.

맥그래스, 엘리스터. 『하나님의 칭의론: 기독교 교리 칭의론의 역사』. 한성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로제, 베른하르트. 『마틴 루터의 신학』. 정병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알트하우스, 파울. 『마르틴 루터의 신학』. 구영철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양신혜. "칼빈의 언약 사상에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4, 2012.